

#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소화시키는 것!”

조희창 음식 칼럼니스트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이탈리아 음식은 모름지기  
오페라 같아야 한다!”

- 웨이벌리 루트

맛은 미의 세계에 속한 개념이다. 칸트적인 구분을 따르자면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하는 사실 판단도 아니고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도 아닌 미적 판단에 속한다.

미술의 아름다움, 음악이 주는 정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가들 중에는 미식가들이 많이 있다.

흔히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년)는 루터교 신앙에 충실한 엄숙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들, 특히 ‘마태 수난곡’, ‘B단조 미사’ 같은 종교곡은 인간의 눈으로 천상을 보게 만드는 걸작들이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엔 음악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왕들은 이른바



‘왕의 춤’과 ‘왕의 식탁’으로 그 절대적인 힘을 드러내고자 했다. 궁정에는 음악가와 춤 선생과 요리사들이 들끓게 된다. 전설적인 요리사 프랑수아 피에르 드 라바랭이 1651년에 ‘프랑스 요리’라는 책을 내놓고 그의 뒤를 이어 루이 14세의 요리장인 페샤멜이나 콩테 공작의 요리사로 일한 바텔 같은 젊고 창조적인 요리사들이 나타나 프랑스 요리의 위세를 유럽 전역에 알렸다. 절대왕정과 미식이 같이 태동한 시대, 무거운 가발을 쓰고서 커피를 마시던 시대, 그것이 바로크 시대였다.

이 즈음해서 커피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다. 바흐 역시 커피의 유혹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시 바흐가 일하던 라이프치히는 커피하우스의 대유행이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다. 바흐는 짐머만 커피하우스라는 곳을 단골로 드나들며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작은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바흐는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곡을 작곡했지만 몇 개의 세속 칸타타도 선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흐 작품번호 211번 ‘커피 칸타타’이다.

원 제목은 ‘가만히 소리 내지 말고(Schweigt stille, Plaudert nicht)’이지만 흔히 들 커피 칸타타로 부른다. 특히 유명한 부분이 커피를 작작 마시라고 나무라는 아버지의 말을 꺾전으로 흘리면서 딸이 부르는 아리아인데, 당시 커피의 위세가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 커피 맛은 정말 기가 막히지.  
수천 번의 키스보다 더 달콤하고,

*Eil wie schmeckt der Coffee süße,*

*Lieblicher als tausend Küsse,*

맛 좋은 무스카트 와인보다 더 부드럽지.

커피, 난 커피를 마셔야 해요.

*Milder als Muskatwein. Coffee, Coffee muss  
ich haben,*

내게 즐거움을 주려거든,

아... 커피 한 잔을 채워줘요.”

*Und wenn jemand mich will laben, Ach, so  
schenkt mir Coffee ein!*

어디 바흐뿐이라. 동시대의 작곡가이자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헨델은 결혼도 마다했지만 먹는 것만큼은 열심히 쫓아다녔다.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같은 작곡가도 커피와 술을 무엇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베토벤은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매일 아침 커피를 갈아서 마시는 의식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치렀다고 한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써놓았다.

“매일 아침 나는 더할 수 없는 내 벗과 만난다. 아침에 커피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60알의 원두는 내게 60개의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

그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선 음악 역사를 통틀어 조아키노 루치니(1792~1868년)를 당할 사람이 없다. 12세 때 이미 ‘현을 위한 소나타’ 같은 명곡을 남겼고, ‘세빌리아의 이발사’, ‘신데렐라’

같은 오페라로 유럽 전역을 요동치게 한 롯시니는 37세부터 작곡을 그만두고 평생을 요리에 탐닉하며 보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평생 세 번 울었다. 첫째는 첫 오페라가 실패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파가니니의 연주를 들었을 때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뱃놀이하다가 점심으로 준비한 칠면조 요리를 물에 빠트렸을 때였다.” 이 정도였으니 당대의 유명한 요리사치고 롯시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롯시니의 유명한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는 돈 마니피코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는 2막 1장에서 자기 딸을 왕자와 결혼시켜 출세해보겠다는 꿈을 꾸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야

*Sarò zeppo e contornato*

추억과 청탁

*di memorie e petizioni*

암탉과 철갑상어

*di galline e di storioni*

술병과 수놓은 비단

*di bottiglie di broccati*

양초와 마리네이드

*di candele e marinati*

빵과 케이크

*di ciambelle e pasticcetti*

과일사탕과 달콤한 것들

*di canditi e di confetti*

접시와 금화

*di piastroni, di dobloni*

바닐라와 커피.”

*di vaniglia e di caffè.*

이 곡을 들으면 식탁에 먹을 것들을 늘어놓고선 급히 작곡하고 있는 롯시니의 뚱뚱한 모습이 같이 떠오른다. 실제로 롯시니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작곡한 사람이었고, 식당이든 술집이든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며 작곡한 일화가 수없이 많다. ‘탄크레디’ 중에 나오는 아리아 ‘이렇게 설레는 가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주문한 리소토를 기다리는 동안 작곡한 곡이며, ‘라 체네렌톨라’ 중에 나오는 아리아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자라나’는 로마의 시끌벅적한 선술집 구석에 앉아 와인을 훌쩍거리며 급히 쓴 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선율로 계속 사랑받고 있다.

작곡으로 돈을 많이 번 롯시니는 결국 서른일곱의 나이에 공식적인 작곡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미식가로 나섰다. 로마, 파리, 런던



던 할 것 없이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치고 롯시니를 모르는 요리사는 없었다. 나폴레옹 황제, 로마노프 왕가, 대영제국 조지 4세의 요리사를 지낸 전설적인 요리사 앙토냉 카렘 역시 롯시니를 두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한 단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한 번은 파리의 레스토랑에 가서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방식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요리사가 너무 긴장해서(또는 롯시니가 너무 간섭해서) 요리를 못하겠다고 하자, 롯시니는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요리하라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명 롯시니 스테이크로 불리는 ‘등 돌린 롯시니’라는 등심 스테이크(tournedos rossini)다. 스테이크 위에 트러플과 푸아그라 슬라이스를 올린 특급 스테이크로 이름 높다. 이 밖에도 ‘카넬로니 알라 롯시니’, ‘리소토 알라 롯시니’ 등 롯시니에게 헌정된 음식은 수없이 많다. 그의 오페라 ‘기욤 텔’에 헌정된 피아가 있는가 하면 오페라의 주인공인 피가로에게 헌정된 패스트리도 있다.

롯시니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헌정된 음식들 역시 대단히 많이 있다.

당대의 소프라노 넬리 펠바를 위해 당시 사보이 호텔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던 에스코피에가 만든 후식이 ‘피치 펠바’이다. 성악의 스타와 요리의 스타가 만난 셈인데, 복숭아와 아이스크림을 어우러지게 만든 이 후식은 지금도 유럽 레스토랑의 메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부다페스트에 가면 헝가리의

집시음악가 리고 안치의 이름을 딴 ‘리고 안치 초콜릿 케이크(rigo jancsi chocolate slices)’가 있다. 불세출의 테너 카루소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닭 간과 버섯을 사용한 ‘카루소 스파게티(spaghetti caruso)’를 내놓는 음식점도 있고,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좋아했다고 알려진 ‘토스카니니 라이스-셀러리 수프(toscanini’s rice and celery soup)’를 내는 곳도 있다. 이렇듯 음악의 세계와 음식의 세계는 친구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얼까? 아마도 롯시니의 이 말에 그 열쇠가 있다고 본다.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또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오페라다”

*“Mangiare e amare, cantare e digerire: questi son o in verità i quattr o atti di questa opera buffa che si chiama vita*

- 조아키노 롯시니